

## 弔辭

소백산 九峰八門에도 겨울이 찾아와 樹木마다 또 한 겹 나이테를 두르는 때에 뜻밖에도 천태종의 元老院長이신 德山 大宗師의 圓寂 소식을 접하니 哀惜한 마음 禁할 길이 없습니다.

德山 大宗師께서는 출가 이후 줄곧 한결같은 精進을 보이시며 圓融無碍의 大道를 익히시고 宗旨宗風을 顯揚함에 率先垂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천태종단뿐 아니라 여러 종단의 스님과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오신 우리 시대의 大德이셨습니다.

時流가 混濁하고 人心은 刻薄해도 德山 大宗師와 같은 明眼宗師가 在世하심에 인륜의 꽃이 시들지 않고 도덕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건만, 이제 스님께서 원적에 드시니 또하나 밝은 등불이 일순간 꺼져버리는 荒亡함이 엄습해 옵니다.

德山 大宗師이시여!

이렇게 원적을 示顯해 보이시는 것이 어떤 法問인지 어찌 모르겠습니까. 天台學의 그 깊은 이치를 두루 遍歷하시고 천태종의 중창과 발전의 底力을 온 몸으로 떠받쳐 오신 그 지극한 생애를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보내드리는 후학들의 마음은 슬픔에 물들어 있지만, 이제 적멸의 그윽한 法香 속에 편히 쉬시옵소서.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는 그날까지 구제중생의 노심초사를 놓지 않으실 자상함이 전 단향 향기로 다가옵니다.

부디 西方淨土 極樂世界에도 그 法香 드리우시고, 다시 그 향기가 法界를 휘감아 六道의 중생을 救濟하는 菩薩의 願力으로 우리 곁

에 나투시옵소서.

아미타 부처님의 光輝로 돌아오소서!

불기 2556년 12월 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 승 분향